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운 Dayoon You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운은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롱 티보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분에서 2위 수상 및 2024년 쾨넨 엘리자베스 바이올린 콩쿠르와 2022년 제16회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파이널리스트에 오르며 세계 음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해 바덴-바덴 칼 플레시 아카데미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뽑는 '최고의 솔로리스트 상'인 슈테브뤼겐 상을 수상하였으며, 제70회 ARD 국제 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솔리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유다운은 바덴-바덴 필하모니 정기연주회에서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의 지휘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였으며, 체코 체스키크룸로프 국제 음악 페스티벌 초청 연주로 남체코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비발디의 사계를 협연하였다. 이 외에도 포즈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또한 알프레도 소리게티, 얀 탈리흐 등 세계 저명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었으며, 베를린필하모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프라하 스메타나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세계 저명 공연장에서 연주하였다.

독주와 협연 뿐만 아니라 협업이 중요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도 열정을 보이는 그는 2023년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르쿠스 슈텐츠가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객원 단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2023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모차르트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에서 아레테콰르텟 제2바이올린 객원 단원으로 참가하여 1위와 함께 모차르트 작품 최고 해석상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 슈바르첸베르크 슈베르티아데 페스티벌에서 노부스 콰르텟의 객원 단원으로 참가하여 예루살렘 콰르텟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6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유다운은 예원학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 음악대학에서 콜야 블라허를 사사하고 있다. 그는 2023년부터 금호문화재단의 금호악기은행 수혜자로 선정되어 1774년산 과다니니 투린을 사용하고 있다.